

석유공사, 공동비축 10주년 기념식

석유공사는 2009년 11월11일 여수지사에서 노르웨이 국영 석유기업 Statoil과 <국제 공동비축 10주년 기념식>을 가졌다.

석유공사는 1100만배럴 수준이던 국제 공동비축 물량을 대폭 늘려 현재 3870만배럴을 유치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.

특히, 석유수급 위기에 대비해 대여시설 규모에 해당하는 물량을 고객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권리(우선구매권)를 확보함으로써 국가 위기대응능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.



또한 국제 공동비축 저장수익 누계가 2억4000만 달러에 달해 정부 예산에 의존하던 비축관리비(약 700억원)를 2008년부터는 전액 자체 충당하고 있다.

석유공사는 현재 9개 비축기지에 총 1억4000만배럴의 비축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, 2013년까지 국제 공동비축을 4000만배럴까지 유치함으로써 경제적인 비축 및 국가 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.

앞으로 석유공사는 국제 공동비축 및 동북아 오일 허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석유물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석유안보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.

10주년 기념식에는 신강현 석유사업처장 및 김승희 여수지사장 그리고 Statoil의 Mr. Berentsen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 행사 등을 가짐으로써 우호관계를 다지는 한편, 석유개발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키로 약속했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09/11/11>